

신·재생 에너지 광주전람회 개막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0(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0)이 3월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3월19일까지 열리는 SWEET 2010은 12개국 160여사가 참가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등 미래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LS전선, SK임업, 한진산업 등이 참가해 풍력과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를 소개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신·재생 에너지 선진국도 참가해 미래 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선보였다.

SWEET 2010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지식경제부의 유망전시회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가운데 최초로 국제적인 전시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았다.

전시회와 함께 국내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27개국에서 해외바이어 200여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03/17>